

나주시, 착한가격업소에서 나주사랑카드 쓰면 5% 추가 캐시백

가계 부담 완화·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나주사랑카드 착한가격업소 5% 캐시백 지원 포스터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착한가격업소에서 나주사랑카드를 사용하는 시민에게 결제금액의 5%를 추가 캐시백으로 지원해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오는 12월 20일까지 관내 착한가격업소(32개소)에서 나주사랑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합리적인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물가 안정에 힘쓰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위생, 서비스 등을 바탕으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나주시는 음식점과 이·미용업소 등 관내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기간 착한가격업소에서 나주사랑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가 캐시백으로 적립된다.

시민들은 착한가격업소의 합리적인 가격에 추가적인 카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업소는 이용객 증가에 따른 매출 확대와 경영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카드 사용을 착한가격업소와 연계함으로써 시민의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정백 기자

담양군, 치매극복주간 맞아 인식개선 활동 펼쳐

화순군, 개천대제·개천절 기념행사 성료

담양군은 제19회 치매극복의 날인 9월 21일을 맞아 지난 9월 7일부터 30일까지 치매극복주간을 운영하며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치매안심마을 주민과 치매환자쉼터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치매 인식개선 캠페인과 지역주민 대상 치매 인식도 조사 등을 통해 주민들이 치매를 보다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치매 인식도 조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수준과 의견을 살폈으며, 조사 결과는 앞으로 치매관리사업과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은 지난 3일 화순읍 국조전에서 단기 4359년 개천대제 및 개천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지락 화순군수를 비롯해 지역 유림과 기관·사회단체장,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단군성조의 뜻을 기렸다. 행사는 개천대제 제례 봉행과 개천절 기념식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개천시 낭송과 개천축가, 만세삼창 등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홍익인간의 건국이념과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서로 화합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함께 나눴다. 화순군은 앞으로도 민족정신과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군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그냥드림’...“어려울 때 부담 없이 찾아오세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그냥드림’ 사업 안내 포스터 /영광군청 제공

해 생계·의료·주거·돌봄 등 복지요구를 확인한다. 3회차 이용 시에는 읍·면사무소 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 필요 여부를 살펴본다.

특히 ‘그냥드림’의 핵심은 단순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물품 지원을 계기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해 공적급여, 긴급복지, 통합사례관리, 민간지원 등 가구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복지지원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영광군은 한정된 지원 물품이 갑작스러운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우선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업 취지에 맞는 이용과 군민들의 관심·협조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그냥드림은 당장 먹거리와 생필품이 필요한 주민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사업”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부담 없이 찾아오시고, 꼭 필요한 이웃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배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장성군 황룡강 가을꽃 절정... 색(色)다른 정원도 관심

황룡강 정원·꽃길 따라 가을 정취 만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8월~11월 열리는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준비를 위해 강변에 파종한 백일홍, 코스모스, 황화코스모스와 정원에 식재한 13종, 1만 8천여 본의 초화류가 만개했다고 전했다.

가을꽃을 감상하기 좋은 곳으로 문화대교~용작교 방면이 첫손에 꼽힌다. ‘가을 전령사’ 코스모스와 주황색, 붉은색, 하얀색 등 다채로운 빛깔의 백일홍이 드넓은 강변 가득 꽃망울을 터뜨렸다.

축제 주무대가 있는 황룡정원에는 붉은색과 노란색 칸나 2000여 본이 돌담 블록을 따라 울창한 꽃길 피어났다. 은목서와 홍가시나무가 어우러져 이색적인 정원 경관을 완성했다.

‘홍담정원’은 코레우스, 미니백일홍, 촛불맨드라미, 산파첸스 등의 초화류가 정원을 붉게 물들였다. 백양사의 가을 풍경이 담긴 책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세단장도 마쳤다.

‘청백리정원’은 장성이 배출한 조선시대 청백리 아곡 박수량 선생의



장성 황룡강 일원에 만개한 백일홍과 코스모스 등 가을꽃 사진 /장성군 제공

청렴 정신을 상징하는 흰색을 주제로 구성됐다. 국화, 일일초, 백묘국 등이 정갈하게 피어 있으며, 한편에는 구절초 7만여 본이 하얀 꽃물결을 이루고 있다.

강 건너편 힐링하브정원 방면에 있는 참여정원은 풍성한 볼거리를 자랑한다. 20개의 정원에 자리잡은 메리골드, 안젤로니아, 일일초 등

11종의 초화류가 각기 다른 개성을 뽐낸다. 장성군민들이 직접 심고 가꾼 정원이어서 더욱 뜻깊은 공간이다.

이밖에도 백일홍과 메리골드가 어우러진 리버파크 화단 등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명소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김재섭 기자

